



인터뷰 =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대표 ②

### 필리핀 대표 라우로

## “농구리그 소요예산 300만원 도와주세요”

### 포천시 400여 필리핀 공동체 단합과 화합 도모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마땅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1991년 12월에 한국에 온 이후 16년째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왔다. 그는 라우로(44·사진)는 가산면에 있는 한 기공장에서 월급 10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

매주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위치한 천주교 춘천교구 가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미사도 드리고 필리핀에서 온 400여명의 근로자 공동체를 관리하고 있다. 대표로 활동한지는 6년이 되었다.

마산리에서 농업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했으나 일자리가 없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라우로는 몸이 아파 혼수상태로 오랜 세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던 누나의 치료비를 송금하는 데 모은 돈이 없다고 한다. 4년 전까지 혼수상태로 있다가 사망했다고 한다.

마산리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남동생은 현재 한국 돈으로 50만원 정도의 월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남동생의 경우는 아주

많이 받는 경우다. 그러나 한국의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8시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30분에 퇴근한다는 라우로는 월세 20만원의 방에서 친구와 둘이 생활하고 있다. 월세는 14만원이지만 전기세 등을 포함하면 2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100만원의 월급을 받아 50만원은 라우로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50만원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어머니께 송금한다고 한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한다.

한국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겨울 날씨가 너무 춥고 김치가 매워 고생했으며 처음 와서 5개월 동안 일하고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다.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돕고 살아갈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라우로는 공동체 대표로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서로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공동체 주최 농구리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10개 팀이 30만원씩 회비를 만들어 리그를 시작했는데 비용이 6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한다. 올해도 농구리그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이지만 300만원은 회비로 모을 수 있지만 나머지 행사경비 300만원을 모을 수가 없어 걱정이지만 이 대회는 필리핀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리그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라우로의 소망이다. 따라서 포천시나 뜻 있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단속에 대해 라우로는 너무 무서워서 숨기도 하며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어렵게 살고 있다. 다행히 천주교 춘천교구 가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필리핀 공동체가 미사도 드리고 서로 도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라우로는 “이제 2개월 밖에 안

됐지만 현재 근무중인 회사 사장이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다”며 “요즘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급도 잘 주신다”고 한다.

현재 필리핀 공동체는 포천시 관내에만 400여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100여명 정도가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필리핀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필리핀 남성이 한국여성과 결혼하면 필리핀 사람이 3개월에 한번씩 필리핀에 다녀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불법체류 필리핀인들 사이에 탄생한 자녀는 1개월 이내에 필리핀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적에도 올릴 수 없다고 한다. 그것도 부모는 갈 수 없고 비자가 있는 필리핀 사람이 데려다 주어야 한다.

라우로는 “한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 선물

### 本紙, 불우이웃돕기 창구 사랑의 열기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가 시 간이 갈수록 사랑의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접하고 여기저기서 직접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 본지가 지역매체로서의 순기능에 충실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희귀병 환자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자 선단동 백승구에 근무하는 장옥희씨는 자신의 딸로 백혈병으로 먼저 하늘 나라로 떠났으며 애써 모아온 돼지저금통을 통째로 기탁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회장님들의 전화가 줄을 잇고 직접 도움을 주겠다고 해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어려운 이웃

을 돕기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얼굴에는 천사와 같은 미소로 언제나 밝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창구에 접수된 성금을 전달할 때는 안타까움보다는 평화를 선물 받고 오는 기분이 들 정도다.

삼성중학교 1학년 조민목 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늘 성실하고 밝게 생활하며 부모님을 도와주는 등 효심이 깊다. 이 학생에게는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삼성중학교를 방문해 2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나중에 자라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복면 오태현씨 등 5명에게 쌀 20kg 1포대씩 5포대를 전달했으며 이동초등학교 원다미 학생에게 10만원, 최명미 학생 10만원, 전찬우 학생에게 10만원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유정 학생, 송대현, 이다영 학생에게도 각 10만원씩 성금을 전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유주원, 최혜성, 이훈희, 조만기, 박소희, 주진영 학생에게도 각각 쌀 20kg 1포대씩을 전달했다.

또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학교생활이 어려운 채지수 학생에게 성금 20만원을 전달하고 곳곳이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접수된 성금 20만원을 삼성중학교 조민목 학생에게 전달하고 격려했다.



영복면 오태현씨 등 5명에게 쌀 20kg 1포대씩 5포대를 전달했다.



이동초등학교 원다미 학생 등 5명에게 쌀 20kg 1포대씩 5포대의 성금을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김기주 이동초등학교 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송대현 학생에게 성금 1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최두열 전무이사가 이다영 학생을 키우고 있는 고모 이해숙씨에게 성금 1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가산초등학교 주진영 학생에게 쌀 20kg 1포대를 전달하고 있다.



본지 이민이 주부명예기자인 이사가 송초현, 유주원, 최혜성, 이훈희, 조만기, 박소희, 전찬우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쌀 20kg 7포대를 전달하고 있다.



본지 이해용 지문위원회 감사기 감사기 어려운 일을 당한 채지수 학생의 어머니 장미순씨에게 성금 2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 추천! 이야기 한마당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

내게는 핸드폰 두 대가 있다. 한 대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 나라에 계신 시어머니 어머니 것이다. 내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두 분의 결혼기념일에 커플 핸드폰을 사드렸다. 문자기능을 알려 드려야 두 분은 며칠 동안 공중대시더니 서로 문자도 나누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3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서 유복가운데 핸드폰을 내가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나가신 후 ‘뽕뽕’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 시아버지의 문자메시지

가 들어왔다.

“여보, 오늘 야간조니까 저녁 어머님이랑 맛있게 드시구려.”

순간 내 너무 놀랐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온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풀려왔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다.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하오.”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라고 했다.

아버님은 그 후 “김 여사!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가려는데 몇 시에 갈까요? 아니지. 내가 미친 것 같소. 보고 싶네”라는 문자를 끝으로 한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 얼마 후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어미야, 오늘 월급 날인데 필요한 거 있니? 있으면 문자 보내게라.”

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네, 아버님! 동태 2마리만 사오세요” 하고 답장을 보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 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아직도 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냥 네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모두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 눈치를 보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지만 요즘은 내게 문자를 보내신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낸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옷은 어디다 숨겨 두셨어요?”

(문의 011-342-5834)

### 의용소방대 특별정신교육

#### 포천소방서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2월 22일 10시 본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07년도 의용소방대 운영 계획 전 반사항과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에 관한 의용(여성)소방대 특별정신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2월 22일 10시 본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07년도 의용소방대 운영 계획 전 반사항과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에 관한 의용(여성)소방대 특별정신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 2007년 한전포천지점 고압단가(소흘·내촌) 공사 협력업체



열린경영으로 기업의 최고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최두열 대표이사



## 성실시공 · 실력배양 · 주인의식

###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인테리어
- 빌딩
- 호텔
- 학교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신호등 및 기타

## 고은종합전기(주)

■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 전화 : 031)542-9771 ~ 4 / Fax : 031)542-1115